

사람·동물·건물...간결함 속 섬세함 줄리안 오피 개인전 "일상이 새롭게 다가온다"

October 13, 2021 | 채지선 기자

Page 1 of 1

사람·동물·건물... 간결함 속 섬세함 줄리안 오피 개인전 "일상이 새롭게 다가온다"

서울 국제갤러리서 30여점 전시

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이 커피를 들고 길을 걸어간다. 걸음은 사듯 당당하다. 경쾌한 발걸음에 맞춰 묶은 머리가 잘랑인다. 그 뒤편 제법 덩치가 있는 아저씨가 서류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. 사무직인지 혹은 거북목이다.

단순하게 표현돼 있지만 사람마다 특징이 뚜렷한 이 작품은 영국의 대

표적인 현대미술 작가 줄리안 오피의 'Daytime'. 낮 시간에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을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.

사람, 동물, 건물을 소재로 한 30여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.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건물 전면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잘 알려진 그의 연는 사람 시리즈를 비롯, 다양한 신작을 만날 수 있다.

작품 속 인물들은 권키와 같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돼 있다. 간결하지만 보면 볼수록 섬세함이 엿보이는 게 특징이다. 국제갤러리 관계자는 "작가는 상상만으로 작업하지 않는다. 철저한 경험과 관찰 속에서 작업한다"며 "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전시"라고 설명했다.

인물도 인물이지만, 배경에도 디테일이 있다.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시간대, 어떤 계절을 배경으로 삼았는지



국제갤러리 K2 1층의 전시장 전경



국제갤러리 K2 2층 전시장 전경



국제갤러리 계곡

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.

전시공간 K2의 1층이 도시의 사람들이 구상돼 있다면, 2층은 동물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. 작가는 감이지, 새, 닭, 소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동물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했다. 빨강, 초

록, 노랑 등 원색을 사용, 하나의 로고 또는 광고 표지판을 떠올리게 한다.

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. 올해 제작한 '인천, 태워 2208'은 작가가 3D 구글 지도를 통해 인천을 둘러보고 만든 작품이다. 인천에 위치한 조

고층 건물에서 영감 받아 탄생시켰다. 직선이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, 영국 런던 중앙부 구시가지 건물에서 영감 받아 작업한 시티 시리즈와는 대조를 이룬다. 전시는 11월 28일까지

채지선 기자